'현우경' 이야기 (45)

부처님의 신력

다섯개 화살 끝 보배광명이 빛을…

옛날 슈라바스티 왕국에 프라세나짓왕이 있었다. 부처님이 한동안 이 슈라바스티에 머물며 왕의 존경을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어느날 남방의 금지라는 나라에 한 사신이 찾아와 왕에게 서신 하나를 전한다.

금지라는 나라는 마하겁빈녕이라는 왕이 힘을 키우고 이웃 나라를 점령하며 용맹을 떨치고 있었다. 금지의 왕은 조공을 받치지 않으면 슈라바스티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다. 덜컥 겁이 난 왕은 부처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아뢰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은 그 사자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우리나라에는 나보다 더 큰 왕이 있소. 그분에게 그 말을 전하시오"

왕은 부처님의 분부대로 이렇게 사신에게 전한다. 사신은 그 말을 듣고 기타숲의 부처님 처소로 향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전륜성왕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제자들은 신하로 만들었다.

또 처소는 보배성이 되게 하고, 성 둘레 사방에서는 일곱 겹 못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는 일곱가지 보배나무를 줄을 지어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연꽃이 빛나 광명이 찬란하게 비추었고, 궁전은 온갖 보배가 되었고, 대왕이 된 부처님은 존엄하기가 이를데 없는 광채를 뿜었다.

금지의 사자는 대왕이 있다는 성에 당도했다. 성안으로 들어서자, 그 장엄한 분위기에 놀랐고 대왕의 용모를 보고 또한번 놀랐다.

"우리의 왕이 공연히 화를 불렀구나"

그리고는 금지왕의 서신을 내보였다. 대왕은 서신을 받아 자리 아래로 집어넣고 그 사자에게 말했다.

"나는 대왕으로서 온 천하를 통솔하거늘, 너의 왕은 완고하고 미욱하여 감히 나를 거슬렀다. 너는 빨리 돌아가 내 명령을 전하라. 이 글을 받는 대로 곧 나에게 달려와야 한다. 만일 감히 이 기약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리라"

그 사자는 분부를 받고 금지국으로 돌아가,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금지국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이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삽화 · 강병호

"내가 슈라바스티 대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왕은 수레와 말을 준비해 병사들을 이끌고 슈라바스티로 향했다. 일단 사신이 알려준 왕궁(부처님의 처소) 가까이 이르자 군사들을 숨게 했다. 기회를 봐서 슈라바스티를 칠 것이라는 결심을 한 것이다.

거기에는 부처님이 모습을 바꾼 대왕이 있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은 온화하며 표정은 맑고 강해 온몸에 광채가 났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가 일고 있었다. 대왕(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린 금지국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분명 형상은 나보다 훌륭하지만 힘은 나보다 못하리라. 내 기회를 틈 타 이 궁전을 치리라'

그때 대왕의 시종이 왕에게 황금 활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무엇이오?"

"황금으로 만든 활이오. 한번 당겨보시오"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왕이 시키는 대로 활을 당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왕은 조금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내 손에서 화살이 툭 떨어지고 말았다. 그 강한 힘에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다. 대왕(부처님)이 금지왕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활을 집었다. 대왕의 활시위는 금지왕을 향하는듯 했지만 이내 허공을 향해 시위를 잡았다 놓는다. 화살이 하늘로 솟아오르자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 소리에 진동했다. 대왕이 다시 다섯 화살을 집어 활시위를 잡아 당겨 쏘니, 그 화살 끝마다 무수한 광명을 내었다. 그리고 그 광명 끝에는 모두 연꽃이 있어 크기는 수레바퀴 같고, 그 낱낱 꽃 위에는 각각 한 전륜왕이 있었다. 그 전륜왕이 일곱 가지 보배 광명을 쏘아 놓으니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래서 다섯 갈래 중생들이 모두 그 힘을 입었다. 저 하늘 세계에서는 그 광명을 보거나 설법을 듣고는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도의 결과를 얻어 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었다.

그래서 불법을 구해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계나 천상에 났다. 또 축생으로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 광명을 보고는 고통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즐거워졌다.

그때에 마하겁빈녕왕과 금지국의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으로 믿고 항복하고 번뇌에서 멀리 떠나 법눈이 깨끗하게 되었다. 잠깐 동안에 부처님께서 신력을 거두니 주변은 다시 본래 형상대로 돌아오니 신하들은 비구들이 되고 궁전은 부처님의 수행처가 되었다.

그때야 금지국의 왕과 그 무리들이 집 떠나기를 구하자 부처님은 이를 허락했다. 그들의 수염과 머리는 저절로 떨어지고 가사가 몸에 입혀졌다. 그들은 묘한 법을 생각하고는 곧 아라한이 되었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